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519

JCCT 2021-11-6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in the Post-corona era

노준희*, 김은영**

No Jun Hee*, Kim Eun Young**

요약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G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만족도, 감성지능, 그릿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로 설명력은 61.7%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과활동 및 비교과 활동의 전략이 요구되며, 이러한 활동 전략이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능력,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help establish positive and professional nursing intuition by confirming the degre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nursing intuition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in the post-corona era.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were nursing students located in G Metropolitan City. A descriptive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22 to March 28, 2021 as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The analysis showed that higher major satisfac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it indicated more positive and professional nursing intuitio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were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61.7%.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urriculum activities and strategies of comparison and activitie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se strategies are also expected to help nursing students establish positive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Key words :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Grit,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Nursing students

*정회원, 우석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10월 19일, 수정완료일: 2021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2일

Received: October 19, 2021 / Revised: October 27, 2021

Accepted: November 2, 2021

*Corresponding Author: eykim@gwangju.ac.kr

Dept. of Nursing, Gwangju Univ,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급속도로 퍼져 결국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2020년 3월 11일에 선포하였다[1].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2].

세계적으로 대유행(Pandemic)의 장기화는 의료진인 간호사의 부족을 초래하고 장시간 근무로 인해 피로감 증가 및 안전 위험 증가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3]. 환자를 직접 간호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의료인 중에서도 간호사의 비중이 73.5%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20.0%, 치과 의사 4.6%, 한의사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하루에 한 명꼴로 COVID-19에 감염되고 있다는 보도[4]를 접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은 COVID-19 상황에서 간호전문직에 관한 재정립 시기가 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꺼리는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된다.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대학생들은 불안과 함께 높은 수준의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합한 간호교육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간호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6].

한편,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낮은 이직률[7]과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능력에[8]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간호전문직관은 대학생 시기의 이론 및 실습 전공교과목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되며, 이때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이 향후 임상실무에서 간호사의 역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9],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COVID-19로 인해 교육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대면 수업 대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 성공적인 학습 활동을 위해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때 학습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10] 그러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우 온라인 환경에서의 학습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11].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10], 이는 향후 졸업 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반면, 긍정적인 심리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자기 주도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학의 주요 관심인 감성지능, 그릿(Grit)간의 관련성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에서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고[12], 대학 생활[13], 간호전문직관[14]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감정 성향을 의미하는 감성지능은 대학생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어떠한 문제 발생 시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15]. 즉,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효율적으로 조절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성지능이다[16].

이러한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전문직관과 관련성이 높은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및 그릿(Grit)을 파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간호대학생들에게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대학 생활을 맘껏 누리고 경험해야 할 캠퍼스 생활의 부족한 경험이 간호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및 그릿이 간호전문직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선행연구와 비교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을 알아보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다양한 전략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1)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련성 및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검정력 .90, Cohen의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예측독립변수 7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 필요한 수는 123명이었으며, 중도 탈락을 고려하여 총 145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부(3%)를 제외한 총 142부(97.9%)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기주도학습능력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Lee 등[1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3개의 능력요소와 8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계획 능력 20문항(학습욕구진단, 학습 목표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과약), 학습실행 능력 15문항(기본적인 자기관리 능력, 학습전략 선택, 학습실행의 지속성), 학습평가 능력 10문항(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자기성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2) 감성지능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Wong과 Law [18]가 개발한

도구를 Jeong 등[19]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자기감성인식(self-emotion appraisal) 4문항, 타인감성인식(other's emotion appraisal) 4문항, 감성활용(use of emotion) 4문항, 감성조절(regulation of emotion)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 까지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Wong과 Law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9 \sim .82$ 이었고, Jeong 등 [19]의 연구에서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3) 그릿

본 연구에서 그릿은 Duckworth과 Quinn [20]이 개발하고 Lim [21]이 수정·보완한 그릿-S 도구(Grit-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8문항으로 '흥미유지' 4문항, '노력지속'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im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4)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Yeun, Kwan과 Ahn [22]이 개발하고 Lee [23]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 전문성', '간호실무 역할', '간호의 독자성'의 총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는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안내문을 첨부하였으며, 안내문을 읽고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동의에 체크를 한 후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취득함으로써 취득하는 직접적 이득은 없으며, 연구거부 또는 중도철회에 대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학문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 후 분쇄하여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의 작성 소요 시간은 20~25분이 소요되었으며, 설문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맞게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은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검증은 t-test, ANOVA로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확인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으로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서 범주형 변수의 경우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처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 175명(80.3%), 남학생 43명(19.7%)이었고, 평균 연령은 21.19세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55명(25.2%), 3학년 75명(34.4%), 4학년 33명(15.1%)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149명(68.3%)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64명(29.4%), 불만족 5명(2.3%)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N=218)

Characteristic	Categories	n(%) or M±SD
Age (years)		21.19±4.28
Gender	Female	175(80.3)
	Male	43(19.7)
School grade	Freshman	55(25.2)
	Sophomore	55(25.2)
	Junior	75(34.4)
	Senior	33(15.2)
Satisfaction with major		2,660±0.52
	Unsatisfied	5(2.3)
	Moderately satisfied	64(29.4)
	Satisfied	149(68.3)

2.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수준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5점 기준으로 평균 3.25±0.4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학습실행 점수가 3.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평가 점수가 3.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7점 기준으로 평균 4.05±0.54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기감성인식 점수가 4.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정활용 점수가 3.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릿은 평균 3.17±0.55점(5점 기준)으로, 하위영역별로는 노력지속 3.31점, 흥미유지 3.03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 평균 점수는 5점 기준으로 4.00±0.43점이었고, 하위영역별 점수는 전문직 자아개념 4.17점, 사회적 인식 3.69점, 간호의 전문성 4.29점, 간호실무 역할 4.18점, 간호의 독자성 3.68점이었다.

표 2.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Table 2. Self-directed Learning,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Participants(N=218)

Variables	M±SD	Range
Self-directed Learning	3.25±0.40	1~5
Planning	3.23±0.50	1~5
Implementation	3.33±0.38	1~5
Evaluation	3.19±0.47	1~5
Emotional intelligence	4.05±0.54	1~7
Self-emotion appraisal	4.43±0.53	1~7
Other's emotion appraisal	4.09±0.69	1~7
Use of emotion	3.68±0.63	1~7
Regulation of emotion	3.98±0.73	1~7
Grit	3.17±0.55	1~5
Consistency of interest	3.03±0.63	1~5
Perseverance of effort	3.31±0.58	1~5
Nursing professionalism	4.00±0.43	1~5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17±0.48	1~5
Social awareness	3.69±0.61	1~5
Professionalism of nursing	4.29±0.50	1~5
Roles of nursing service	4.18±0.57	1~5
Originality of nursing	3.68±0.56	1~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5.74, p=.004)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Table 3.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218)

Characteristic	Categories	M±SD	t or F(p)
Gender	Female	4.01±0.42	0.19(.846)
	Male	3.99±0.48	
School grade	Freshman	4.05±0.43	0.34(.799)
	Sophomore	3.98±0.44	
	Junior	3.98±0.46	
	Senior	4.02±0.35	
Satisfaction with major†	Unsatisfied ^a	3.79±0.28	5.74(.004)
	Moderately satisfied ^b	3.87±0.44	
	Satisfied ^c	4.07±0.42	

† Scheffé test

4.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r=.32, p<.001$), 감성지능($r=.78, p<.001$), 그릿($r=.15, p=.026$)에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감성지능($r=.14, p=.038$), 그릿($r=.63, p<.001$)에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감성지능은 그릿($r=.19, p=.005$)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공만족도, 감성지능, 그릿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지수는 0.894~0.962로 모두 0.10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40~1.118으로 값이 모두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지수 값이 1.706으로 나타나 잔차의 상호 독립성을 만족하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1.684, p<.001$). 또한, 잔차의 선형성, 정규 분포성 및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감성지능($\beta=.742, p<.001$), 전공만족도($\beta=.127, p=.004$) 순이었으며,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62.1%이었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표 4.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directed Learning,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ism(N=218)

Variables	Age	Satisfaction with major	Self-directed Learning	Emotional intelligence	Grit	Nursing professionalism
	r(p)	r(p)	r(p)	r(p)	r(p)	r(p)
Age	1					
Satisfaction with major	.04(.576)	1				
Self-directed Learning	.06(.406)	.02(.760)	1			
Emotional intelligence	-.06(.417)	.27(<.001)	.14(.038)	1		
Grit	.11(.111)	.00(.999)	.63(<.001)	.19(.005)	1	
Nursing professionalism	-.13(.052)	.32(<.001)	.13(.051)	.78(<.001)	.15(.026)	1

표 5.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
 Table 5. The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N=218)

Variables	B	SE	β	t	p	R ²	Adj.R ²	F(p)
(Constant)	1.283	.173		7.427	<.001	.621	.615	116.684(<.001)
Satisfaction with major	.078	.027	.127	2.915	.004			
Emotional intelligence	.593	.036	.742	16.675	<.001			
Grit	.008	.034	.011	.251	.802			

Reference group: Satisfaction with major.satisfied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3.25점으로, 하위영역 중 학습실행 점수가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평가 점수가 3.1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4]에서도 학습 수행도나 기한 내 과제를 제출하는 학습실행은 높고, 성적이나 과제수행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학습평가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COVID-19 이후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는 본인의 학습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실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에서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학습과정을 선택하고 통제하여 학습효과를 최대화 해야한다 [10].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전략과 온라인 학습 환경의 개선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감성지능은 평균 4.05 ± 0.54 점(7점 만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기감성인식 점수가 4.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정활용 점수가 3.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간호사가 인간관계에서 감정노동을 관리하는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12]. 따라서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본인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참여가 권장되며[25], 특히 감정활용 점수가 제일 낮은점을 고려하여 명상, 마음 챙기기, 정서관리 상담 등 다른사람의 감정과 정서에 공감하고, 자신의 감성정보를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정훈련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그릿은 5점 만점에 3.17점으로, 노력지속이 3.31점, 흥미유지가 3.03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26]에서 그릿이 3.11점이며, 하위영역 중 노력지속이 흥미유지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릿의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21]에서 그릿의 성격이 흥미유지보다는 노력지속의 특성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본 연구 결과에서 노력지속이 흥미유지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그릿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대학생 4년 동안의 목표를 위계화시켜 설정하고[20],

전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높여준다면 노력지속과 함께 그릿 수준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들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기준으로 평균 4.00점이었다. 이는 Hwang과 Shin[7]의 연구에서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나타난 점수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고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의 3.69~3.80점[26-28]으로 나타난 점수보다는 높았다. 특히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 역할, 간호의 독자성 모두에서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COVID-19와 같은 신종감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선행연구[26,28]와 같은 결과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전공학문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28],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저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공 교과목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 감성지능과 그릿에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감성지능과 그릿에서, 감성지능은 그릿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도[7], 감성지능[25], 그릿[26]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61.7%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생활에 잘 적응하고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감성지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감성지능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25]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일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고,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 감성지능과 그릿에서 각각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요인은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감성지능을 강화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The declaration COVID 19 'pandemic. Retrieved from <https://m.m.edigatenews.com/news/3323472469>.
- [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Q & A on coronavirus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3]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2021). Coronavirus Disease-19,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ncov.mohw.go.kr/en/>
- [4]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21). More than 188 nurses infection from COVID-19.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893>
- [5] Park JH, Kim JH, Lee HJ, Kang PR. The relationship of anxiety, risk perception, literacy, and compliance of preventive behaviors during COVID-19 pandemic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2021;38(1):48~59. <http://dx.doi.org/10.12925/jkocs.2021.38.1.48>
- [6] Oh EG. Perspectives on nursing profession for a post-COVID-19 New Normal.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20;32(3):221-222.
- [7] Hwang EH, Shin SJ.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7;31(1):97-108. <https://dx.doi.org/10.5932/JKPHN.2017.31.1.97>
- [8] Moon YS, Han SJ. Impact of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1), 72-79.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1.072>
- [9] Kim YR.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views on nursing profession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95;2(2):169-181.
- [10] Kim KA.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efficacy, learning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in home-based cours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21;12(2):337-345.
- [11] Kim SH, Lee SH.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5;27(1):63-72. DOI: 10.7475/kjan.2015.27.1.63
- [12] Jung MR, Jeong 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18(6):414-423. <https://doi.org/10.5392/JKCA.2018.18.06.414>
- [13] Lee SJ, Park JY.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2):269-276.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69>
- [14] Park H, Lee K, Shin 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inical nurses grit scale (CN-GR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0;26(1):55-64. <https://doi.org/10.11111/jkana.2020.26.1.55>
- [15] Ji kj, Yu JY. A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happiness university student division of heal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3;11(10):653-660
- [16] Salovey P, Mayer JD.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1993;9(3): 185-211.
- [17] Lee SJ, Chang YK, Lee HN, Park KY.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2003;1-145.
- [18] Wong CS, Law KS.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2002;13(3):243 - 274. [http://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본 논문은 광주대학교의 2021학년도 학술
연구 조성비를 지원 받음

- [19]Jeong HR, Choi HJ, Park M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K-WLEI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2020;50(4): 611-620. <https://doi.org/10.4040/jkan.20109>
- [20]Duckworth AL, Quinn P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2009;91(2):166 -174.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 [21]Lim HJ. An exploratory study on grit's factor structure and its valid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7;18(2):169-192. <https://doi.org/10.15753/aje.2017.06.18.2.169>
- [22]Yeun EJ, Kwa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2005;35(6):1091-1100.
- [23]Lee SR.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Ajo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24]Oh HS. Influence of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8):311-321. <https://doi.org/10.14400/JDC.2017.15.8.311>
- [25]Lee KO, Chae HJ.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10):355-365. <https://dx.doi.org/10.14400/DJC.2016.14.10.355>
- [26]Lee IS, Jeon Mk, Lee MY. Stress,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cle Joint Health*. 2020;27(3):298-306. <https://doi.org/10.5953/JMJH.2020.27.3.298>
- [27]Jun WH.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ompassion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Home Care Nursing*. 2020;27(2):169-178. <https://doi.org/10.22705/jkashcn.2020.27.2.169>
- [28]Kim HW, Yoo MS. The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r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20;14(2):41-54. <https://doi.org/10.12811/kshsm.2020.14.2.041>